

버티다 보면 다른 것들이 견딜 만해지리라

당신은 충분히 값진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길

시 김미경

폼짝 앓고 책장 이음새 기대
오늘은 잠을 자 두면 좋겠다

녀석은 주로 빛이 어스름할 때 또는 밤중에 그리고 가끔은 흐린 날에 몰었다.

나는 가슴 위에 놓인 녀석의 무게를 견뎌내야 했다. 녀석을 위해 책상에 먹이를 놓아두었다. 녀석이 뭘 먹고 사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내야 했으니까.

식성은 의외로 까다로웠다. 살아 있는 내 피 외엔 건드리지 않았다. 배 밑에서 올라오는 목적인 나의 공포감을 눈치 채고 그것이 녀석을 신나게 한 게 분명했다. 봉 뜯 채 내가 나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었다.

녀석은 인류 친척들과 오래 살아



그들을 좋아한다고 했다. 배가 불러 만족하면 손가락에 침을 묻히더니 불멸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 스스로를 가둔다며 책더미 속으로 기어들었다. 녀석은 음식에 숨어 지내야 했다. 가끔 마주치는 것조차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으니까. 아니 녀석에게 자극받으면 늘 반응하는 우리랑 놀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끈적이는 몸을 비벼대며 혼자 있는 것을 필사적으로 반겼다.

아무런 저항 없이 부드럽게 우리를 뚫어 내부를 천천히 비워내는 것이 녀석의 목표일지 모른다. 마지막까지 녀석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아 두고 먹어두고 그래야 녀석에게 영원히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나도 녀석처럼 폼짝 앓고 책장 이음새에 기대서 잠을 자 두는 게 좋겠다. 끈질기게 버티다 보면 다른 것들이 훨씬 더 견딜 만해질지도 모르는 일인가 말이다.

잠깐 내린 눈송이가 아이들처럼 골목길을 뛰어다닌다.

33년째 묵묵히 신춘문을 운영 하고 있는 한라일보사에 감사드린다. 내 시가 부족한 만큼 심사위원 들에 대한 고마움이 크다. 음악적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진용진 선생님과 시의 집을 짓는 김기호 대목 그리고 '시와몽상' 시우들에게 감사드린다.

▷1964년 제주 출생 ▷'시와몽상' 동인

소설 차수진

'가치 있는 것' 생성하지 않아도
오늘 살아낸 당신은 강한 사람

사람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

누구나 아는 명제이지만 이를 자신에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지나간 삶에서 언제나 성공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수많은 꺾이고 주저앉는 경험을 한다.

아무리 낙관적인 사람이라도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자신감을 잃기 마련이다. 밖에서 찾던 실패의 원인은 점점 내 안으로 모여들다가, 결국에는 '자신' 그 자체가 되고 만다. 그러면 중얼거리게 되는 것이다.

나는 겨우 이 정도의 사람일까? 그 슬픈 명제 속에 매몰된 사람들에게 외치고자 글을 썼다. 당신



은 영원히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것이다. 목이 마르고 다리가 저려서라도 결국에는 일어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한 고비를 넘어선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조차 너무 힘들다면 굳이 일어설지 않아도 된다. 그냥 거기서 지금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겨우 '그 정도'의 사람이더라도 당신은 충분히 값

진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한다. 사회적으로 소위 '가치 있는 것'을 생성해내지 않아도 좋다. 오늘을 살아내고 또 내일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강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타인에게, 또한 나 자신에게.

다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고개를 들어 주변을 한 번 둘러봐 주면 좋겠다. 대단한 사람의 거창한 한 마디가 아닌 짧은 인사말도 당신의 오늘을 아름답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그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위로를 놓치지 않기를.

계속 글을 쓸 수 있도록 힘을 준 가족과 친구들, 교수님, 학우들에게 감사한다. 또한 이런 이야기를 꺼내 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준 심사위원님과 한라일보에 감사한다.

▷1981년 서울 출생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경희사이버대학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졸업

활달한 시적 상상력과 사물 꿰뚫어 보는 개성적 시선

알레고리 기법 마음나눔 통한 치유 메시지 참신

시 심사평

모성의 부재로 인한 비극미
공동체 의지 추동 달의 은유

2022년 한라일보 신춘문에 시 부문에는 전국 각지에서 199명이 총 1142편의 작품을 응모하여 성황리에 마감되었다. 시 부문 199명의 응모자의 작품 중 예심을 거쳐, 본심에서는 최종 10편의 작품이 거론되었다.

올해 신춘문에 응모작들의 특징은 시의 길이가 길어지고 산문시 형태가 많았다는 점이다. 내용면에서도 현대인들의 소외와 불안, 서정성이 짙은 작품 등 다양하고 참신한 시적 경향을 선보였다.

본심에 오른 응모작 중에서 눈길을 끈 작품은 '엄마 달과 물고기', '거품공장 공장장 탁씨', '뜨겁고 흰 유언' 등 3편이었다. '거품공장 공장

장 탁씨'의 경우, 아웃사이더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으며, '구름(담배 연기)'과 '죽음'이라는 이질적인 결합이 시의 비극성을 환기하는 미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시 세계가 확장되지 못한 채 관습적으로 마감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뜨겁고 흰 유언'은 '어미 개'의 죽음을 통해 어미 개가 지닌 모성의 세계와 인간 혹은 공권력이 지닌 폭력성을 포착한 작품이다. 안정적인 시적 구조와 상징을 통해 시의 진정성을 잘 보여주는 반면 상상력의 변용과 확장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논의 끝에 '엄마 달과 물고기'를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엄마 달과 물고기' 외에 '눈, 어슴푸레한', '오래된 서랍' 등 응모작들도 편차 없이 고른 수준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활달한 시적 상상력과 사물을 꿰뚫어 보는 시각이 개성적이며, 시 창작에 몰입한 고투의 시간이 육화되어 언어를 다루는 솜씨가

탁월하다는 점이 돋보였다.

당선작인 '엄마 달과 물고기'는 모성의 부재로 인한 비극미와 더불어 '달'이라는 매개를 통해 역사인식은 물론 은유와 상징성까지 획득하고 있다. 이때의 '달'은 타자와의 조화로운 삶을 염원하고, 공동체의 의지를 추동하는 매개로 작동하고 있어 '엄마 달과 물고기'를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수상자에게는 거듭 축하를, 응모자분들께는 깊은 감사와 응원을 전한다.

<심사위원=김수열(시인), 서안나(시인)>



김수열 서안나

소설 심사평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하는 흡인력
이색적 상황 전개 속 언어의 마술

우선 본심에 오른 열 편에서 절반을 추려냈다. '검은 입'의 틀은 카카오 대화를 통해 나와 상대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게 구심점이다. 그림자, 의자 사진 찍기와 반지하 방에 출몰하는 그림자에 초점을 맞췄으면 어떨까 싶었다. '낙지의 꿈'은 낙지잡이 귀신 할머니, 낙지 찜닭 엄마와 아빠의 삶, 도시 생활을 정리, 귀향한 사연이 핵심이다. 도시를 떠나게 한 상황 설정이 너무 안이해서 울림을 반감시켰다. 그리고 '피로면서'는 진중한 주제 의식에 비해서 플롯의 평이함, 시공간의 모호함, 설명하기와 보여주는 것이 조화롭지 못해 지루했다.

최종적으로 '후레자식의 꿈', '똥' 두 편을 놓고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후레자식의 꿈'은 공간 이동에 따른 가족 이야기를 중심축으로 땀이치기, 마트료시카, 재래시장, 공책에 시와 단어 쓰기가 압축적 복선으로 깔려 있다. 짜임과 문장이 간결하고 명쾌하다. 하지만 '-지'로 끝나는 중얼거림의 독백체 서술에 부분적 오류가 있고, 인물과 사건의 극적극면 장치가 미흡한 게 가장 큰 결함이었다.

'똥'은 평균적인 삶을 추구하는 일상에 균열을 가하는 특이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화두로 삼고 있다. 그녀는 염소 퐁만한 태아가 유산한 이후 퐁이란 말만이 유일한 언어로 남는다. 나중에는 '똥 속에 파묻혔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듯 동(童)' 하고 소리를 낸다. 알레고리 기법으로 삶의 고단함과 불안, 소외, 잃어버린 자아는 이웃과의 진정한 마음나눔으로 치유된다는 메

시지가 참신했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하는 흡인력이 있다. 이색적인 상황 전개가 작위적 언어유희가 아닌, 언어의 마술이라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당선작으로 방점을 찍은 이유였다.

차수진 님에게는 축하와 더불어 거듭 정진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당선작과 견주었던 작품을 비롯해, 135편의 응모작에서 본심, 그 절반에 오른 작품의 응모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심사위원=고시홍(소설가), 김재영(소설가)>



고시홍 김재영

**콘크리트 먼처리
콘크리트 폴리싱
세라믹 폴리싱
테라조 연마 광택**

에폭시/우레탄 도막제거

**아직도 공장, 주차장, 사무실, 쇼핑센터, 물류창고 등
바닥에 에폭시나 타제품으로 시공하고 계십니까?**

**선진국형 친환경 마감공법인
콘크리트 폴리싱 시공으로 한 번에
영구적 바닥 해결!**

신화역사공원 YG

대형 상가매장

일정리 카페

표창장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이사장 직책회
귀하는 자조자립 전통의 전통조합
정신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소상공인
진흥조합 활성화 및 경제적 계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박영

제주대 중앙도서관 도끼다시바닥

세외카페

우동협하나로

**강한 내구성, 친환경 시공, 쾌적한 표면, 작업환경의 개선
저렴하고 용이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한 안전 바닥재**
HTC SUPERFLOOR™
콘크리트 바닥재의 새로운 혁명!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주식회사 제라콘
☎ 723-3090 010-5678-2586

냉동창고 콘크리트 폴리싱

영남미디어센터

종달리 카페

동아협은 물류센터